

노인 대상 사기 피해 조심

“혼자 결정 금물... 가족과 상의 해야”



삼신이 미약한 노인들의 경우 판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노인 대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판별력이 미약한 노인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뭔가 법벌이’를 해야 한다는 노인들의 절박감을 파고드는 한편,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접근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노인 범죄 예방과 수사를 맡고 있는 전남 경찰청 김원석 수사 2계장으로부터 노인 대상 사기 등 범행사례와 대처법을 들어봤다. 응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금전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등을 제의할 경우 혼자 결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노인 대상 사기 범죄 유형=최근 노인들을 노리는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대만인 우모(4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황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 등은 70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모든 통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속인 뒤 현금인출기로 불려내 1천 800만원을 빼내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7천3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낮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대포통장 번호를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짓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 등으로 비교적 목돈을 쥔 노인들

은 사기범들에게 ‘먹잇감’이 되기 쉽다. 납골당 투자를 미끼 삼아 노·장년층 노인들은 수백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수당을 뺀 수입여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응의자들은 유행회사를 차린 뒤 ‘납골당에 투자해 영업이익이 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챘다.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다 판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어렵게 사는 노인

전화 금융사기 예방법

-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 전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한다.
• 전화 금융 사기에 속아서 계좌이체를 했다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나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 무심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 신고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사에도 신고한다.
• 발신자 표시번호가 008, 030, 086 등으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는 주의한다.
•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통화를 유도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케할 경우 일단 의심한다.

청 노인 위문공연 등을 내세우며, 노인들을 유혹해 싸구려 물건을 고가에 강매, 노인들을 울리고 있다. 황당한 사기 유형도 적지 않다. 도시 사는

돈이기 때문에 금전에 관련된 문제는 되도록 자녀들이나 지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계좌이체나 송금을 요구할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를 통해 은행에 가도록 하든지, 계좌 이체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식 공인 중개사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관련 계약에 대한 상담을 제의할 경우 거절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도박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참여하지 않는다. 쉽게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도박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특히 길거리나 번두리에서 낯선 사람이 도박을 제의할 경우 그 자리를 피

실버라운지



권성욱

사람들은 누구나 자아실현의 욕구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뒷받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1차적으로는 가정이나 본인의 몫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은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만들어지는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적 통합의 원칙, 그리고 개인의 성장욕구충족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져야 한다.

대학생이었던 실업자는 월세로 고시원에서 살아가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비어있는 강의시간동안 고시원에서 뛰고 매일 무료급식소를 찾아 돌아다니다시피 한 본인의 몫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

저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약자로 평가되는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있어서 기반을 다진 이들이 지금의 노인세대라 할 수 있다.

그런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언젠가 만난 저소득 층의 노인들을 기억한다. 병원비가 없어서 사고후 제대

최저 생계비로는 ‘최저 생활’ 보장 안돼

일련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지원을 최저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저 생활보장이란 것은 단순히 경제적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및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어느 정도를 최저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빈곤선 이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로는 최저생활이 보장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한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니다’였다. 얼마전 대중매체를 통해 기초수급비용을 가지고 한달을 살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을 보았다. 짧은 대학생활과 4인 가족이 각각 조건에 맞는 기초수급비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션이었다.

로 치료도 되지도 않은 다리를 끌고 한겨울을 보내던 이와, 식사를 하기 위해 매일 무료급식소를 찾아 돌아다니다시피 한 어르신 모습은 한동안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수 없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저소득 계층, 특히 노인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너무도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예를 들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집 주변에서 보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준다든가 소개를 받아 한 가정적 자매결연을 맺어 주거나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니다’였다.

얼마전 대중매체를 통해 기초수급비용을 가지고 한달을 살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을 보았다. 짧은 대학생활과 4인 가족이 각각 조건에 맞는 기초수급비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션이었다.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건강식품 투자 회사 이름부터 파악을 상품 제공 효도관광은 무조건 피해야

아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감옥가게 생겼다면 시골노인에게 합의를 송금하도록 해 떼어 먹거나 변호사나 공무원을 사칭, 정보보조금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돈을 가로챈 수법도 있다.

노인 범죄 예방법=경찰이 노인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본인의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 응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아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감옥가게 생겼다면 시골노인에게 합의를 송금하도록 해 떼어 먹거나 변호사나 공무원을 사칭, 정보보조금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돈을 가로챈 수법도 있다. 노인 범죄 예방법=경찰이 노인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본인의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 응의자들이 노리는 것은

해야 한다. 건강 식품의 경우 공식기관이나 제조회사가 명시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피한다.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회사명을 파악해 지인 및 가족들과 상의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화장지 등 미끼 상품

을 제공하는 효도관광, 초청잔치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같은 행사에 참여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성진 전남경찰청 수사 2계장은 “노인 대상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 본인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 초 주야 합격 강좌. 5~6월: 기본서이론(기초이론부터 심화학습강좌). 7~8월: 핵심이론 및 단답형 문제풀이 강좌. 9~10월: 최종정리 및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할.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정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529-8111. 개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안빌딩 6층.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 기획 세무 관세 감사 법회 회계 교정 보훈 소방 전자 특목 특진 건축 보건.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열강중) ※ 금년 중 하반기 시험. 6월2일(주 아반모집). 6개월(중)회원 80만원. 1년(정)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값(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중앙초교 추운동). ☎222-4560. www.mdgoel.co.kr

광주·전남 기능장학. 대산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NAVER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이)대산프리모를 쳐주세요.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균일가 6월말까지. 초슬림!! 스릴과 맘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여성무모(無毛)전회 원통화OK! *화상 피부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할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 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료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abal.co.kr.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